

여·야4당, '한국당 5·18 폼페이' 맹공



한국당 '5.18 발언'과 관련하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상임 회동한 왼쪽부터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논의한 대책을 말하고 있다.

여야 4당은 11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5·18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으로 폼페이한 데 대해 "망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주최하고 국유논객 지만원씨와 함께 문제의 발언을 쏟아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은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까지 나서 "문제의 발언은 당 전체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5·18일 일정으로 방미에 나선 이해찬 대표의 입장을 대독해 "5·18에 대한 망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5·18 진상규명 공청회가 아니라 5·18 모독회였다"며 "발표자의 천안공포할 망언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한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당이라면 세 의원의 망동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출당조치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5·18 관련 범죄적 망언을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같다"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5·18 희생자들에게 이쁨을 줬다면 유감이라 했지만 망언한 의원들의 징계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나 이번 사안은 유감 표명만으로 끝낼 수 없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은 우리 국민이 이룬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이자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18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야 한다"며 "우리 당은 야3당과 공조를 통해 범죄적 망언을 한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추진

이해찬 "망발 깊은 분노·유감...공청회 아닌 모독회" 순하규 "어처구니 없는 일...보수세력 그대로 보여"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한국당 "당 흠 주는 행위 안해야...전체 의견 아냐"

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야권인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순하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한국당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유죄 확정을 받은 지만원씨의 거짓 주장을 방조한 것도 모자라 현직 의원들이 망언을 쏟아냈다"고 성토했다.

이어 "5·18 광주학살 참극은 우리 역사의 비극으로 또 다른 면에서 5·18 광주정신은 민주주의 역사의 커다란 자부심으로 육득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당은 적당한 변명 속에 그대로 넘겨려고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달리 할 수 있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세는 한국당의 역사적 인식, 그리고 보수세력의 현재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역사 왜곡을 폼페이하는 일을 국회 차원에서 그대로 버릴 수 없다. 국회 윤리위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은 그 어느 때보다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평화당은 주말인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는 물론 고소·고발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3당과 협의해 세 의원의 제명을 추진할 것"이라며 "5·18 단체, 유가족, 국민들과 연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 지도부도 이제 국민에게 명확한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도부에 출마한 후보들 역시 공당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5·18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윽고 그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 출당 등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의 후예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정당이 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해당 의원들과 지도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광주 항쟁을 모독하고 유족과 광주 전남 시민에게 정치적 패륜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원내대표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무슨 망발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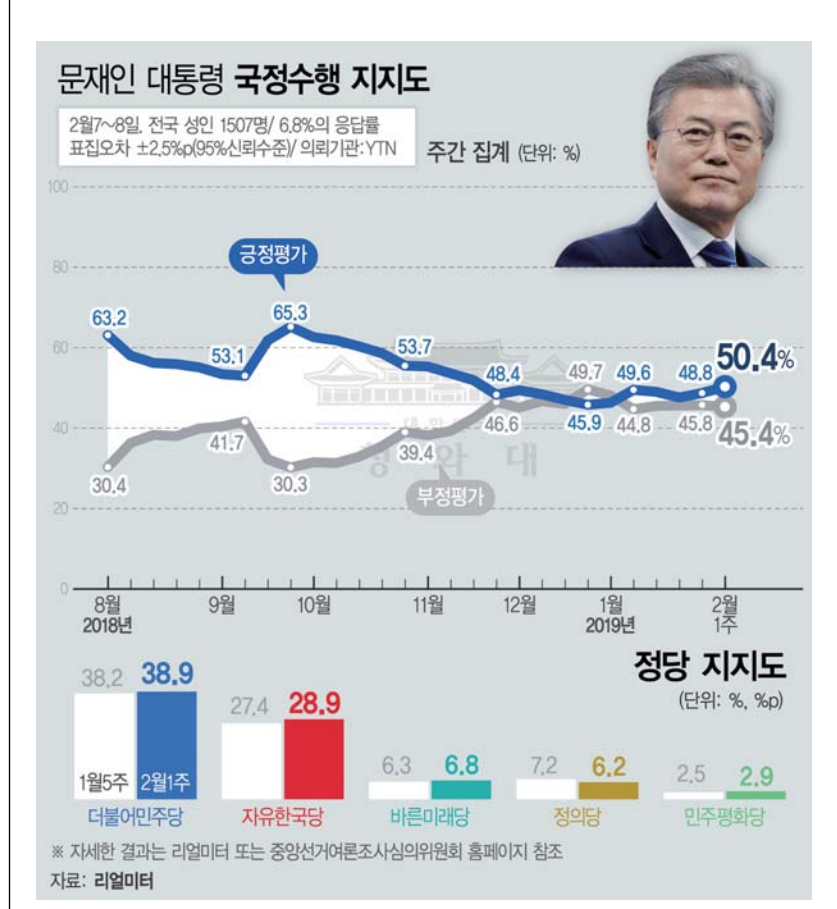
그러면서 "지금 한국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라면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고 출당시키며 야당이 추진하는 의원 제명절차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정치권의 공세와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한국당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들은 문제가 된 발언이 당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 경계심이 약화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여러 어려운 시점에 당에 흠을 주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도 회의에서 문제의 발언에 대해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마치 우리 전체 의견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전체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세운 '문민정부가 주도했던 역사비문세우기'를 통해 역사적 평가를 끝낸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주장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 국정지지율, 11주 만에 50%대 진입... '평화 이슈' 영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세를 그리며 50%대로 진입했다. 전주 대비 1.6%p 상승한 50.4%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7~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상대로 조사해 11일 공개한 2월 1주차 주간 집계 여론조사(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6.8%)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4%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4%p 내린 45.4%(매우 잘못함 28.2%, 잘못하는 편 17.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2%p 감소한 4.2%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4주차 주간집계에서 48.4%(부정평가 46.6%)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40%대로 하락했고, 한 달 뒤인 12월 4주차에는 45.9%(부정평가 49.7%)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1월 5주차까지 10주 연속 40%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설 연휴 직후 지난주 조사에서는 다시 50%대로 올라서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리얼미터는 이번 회복세에 대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북미 실무협상 소식 등 최근의 한반도 평화 이슈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총정권(▼2.8%p, 47.8%→45.0%) 부정평가(52.5%)와 부산·울산·경남(▼2.1%p, 42.3%→40.2%), 부정평가(53.1%)에서는 소폭 이탈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1월5주차 주간집계 대비 0.7%p 오른 38.9%를 기록했다. 3주 동안 이어진 내림세가 꺾이고 소폭 반등한 수치다. 자유한국당(28.9%), 바른미래당(6.8%), 정의당(6.2%), 민주평화당(2.9%) 순으로 민주당의 뒤를 이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준표, 전당대회 불출마... "끝까지 함께 못해 유감"

전당대회 일정 변경을 촉구하면서 보이콧(거부) 방침을 밝혔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는 모든 후보자가 정정당당하게 상호 검증할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을 해 우리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의 부족함이다"라며 "저 스스로 돌아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내 나라 살리는 길을 묵묵히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날짜가 겹치는 점 등을 이유로 전당대회를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다른 후보들과 함께 전당대회 보이콧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정 변경을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소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길 5